

#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 71개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 제시 -

< 국민 삶의 질 지표 상황판 ('25년 12월 기준) >

● : 개선(37개), ● : 악화(25개), ● : 동일(9개)



주. 1) '25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다만,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26년 1월 공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25년 4분기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2) \* 표시된 지표는 2년 이상 주기 지표로 '25년에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24년 12월 기준과 동일

※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연구원 홈페이지(<http://mods.go.kr/dsri>),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 홈페이지(<http://www.index.go.kr>)에 게시되어 있음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2-366-7314)

-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되었다.
  -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21개, 조사자료 50개)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출처가 다양
  - 보고서에서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 지표작성 시점('25년 12월 말)에 따른 유의사항

- '25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된 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
- \* 71개 지표의 최근 통계연도('25년 12월 기준): 25년(11개), '24년(56개), '23~'20년(4개)

-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유형화 및 행복 측정에서의 조사 설계효과 검증에 주제를 작성하였다.
    - \* 이슈분석은 삶의 질 관련 이슈를 선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체 원고는 보고서 127쪽에 수록
  -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권다운, 한국 사회과학자료원)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여 삶의 질을 분석하였으며,
  - '행복의 참값(true value) 찾기 : 실험조사의 함의'(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행복 수준의 참값을 찾기 위해 조사 방법에 의한 모드 효과(mode effect)와 조사 문항 순서에 의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의 존재를 실험 조사로 검증한 결과와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 김진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은 “영역별 삶의 질 지표의 개선 및 악화 추세를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 삶의 질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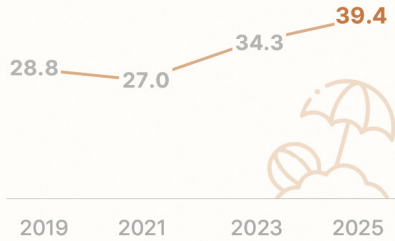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

(단위: %,  $\mu\text{g}/\text{m}^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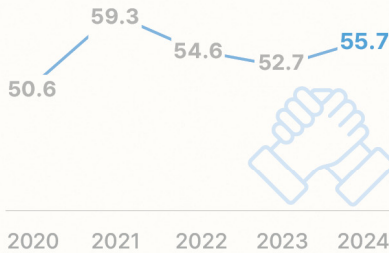
###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34.3%에서  
2025년 **39.4%**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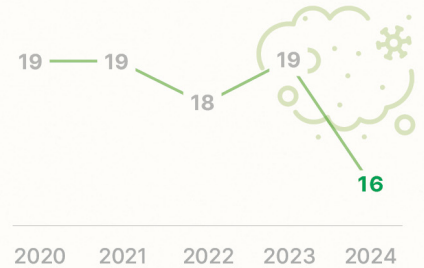
### 대인 신뢰도는

2023년 52.7%에서  
2024년 **55.7%**로 증가



###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이후 정체되어 있었으나  
2024년 **16 $\mu\text{g}/\text{m}^3$** 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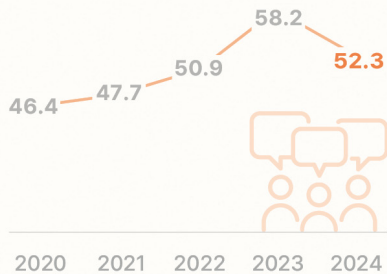


## 전기 대비 악화된 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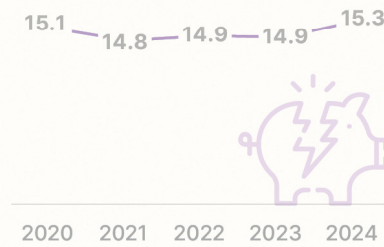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0년 46.4%에서 증가 추세였으나  
2024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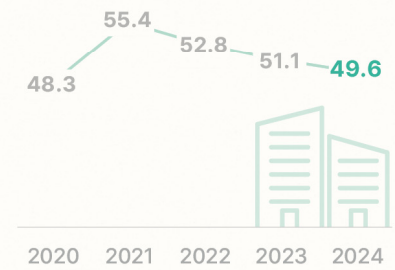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에서  
2024년 **15.3%**로 증가



### 기관 신뢰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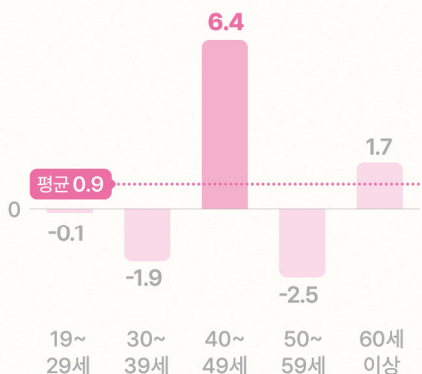
2021년 55.4%에서  
2024년 **49.6%**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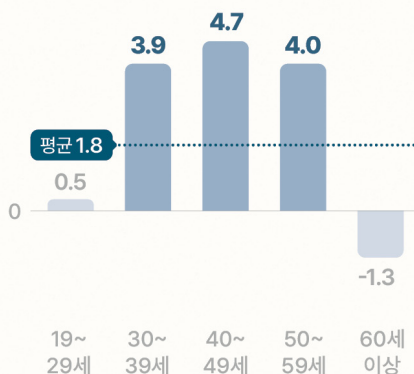
## 전기 대비 증감: 연령별 차이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 | 단위: %p, 명/10만 명)

비만율은 **40대**가 2024년 44.1%로  
2023년 37.7%보다 **6.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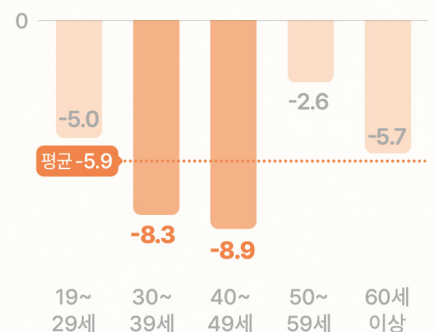


자살률은 **30대~50대**가 전년 대비  
**4명**(인구 10만 명당) 내외로 증가



사회단체 참여율은 **30~40대**가

2024년 52%로  
2023년 보다 **8%p 이상** 감소



# 「국민 삶의 질 2025」 주요 결과

## 1. 전체 요약

업데이트된 52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지표 29개, 악화지표 15개

- 11개 영역 중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주거, 여가, 시민참여 영역은 개선 지표가 많고, 가족·공동체, 교육, 환경, 안전 영역은 악화 지표가 많음
- 전체 71개 지표 중 '25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52개이며, 전기 대비 개선지표 29개, 악화지표 15개, 동일지표는 8개임('25년 12월 말 기준)
  - ('25년 수치 반영) 11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은 8개, 악화는 1개, 동일은 2개임
    - 고용률, 일자리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가구순자산,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선거투표율, 자원봉사 참여율 지표들이 개선된 반면,
    - 사회적 고립도와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하고, 소득 만족도는 악화됨
  - ('24년 수치 반영) 41개 지표 중 전기 대비 개선 21개, 악화 14개, 동일 6개임
    - 기대수명, 월평균 임금, 1인당 국민총소득, 대인 신뢰도 등은 개선
    - 주택임대료 비율, 산재사망률, 삶의 만족도 등은 전년과 동일
    - 비만율, 자살률, 사회단체 참여율, 1인당 국내여행일수 등은 악화됨

### < 업데이트된 52개 지표의 통계연도별 전기 대비 개선·악화 현황 >

통계연도 기준	계	지표의 최근 변화		
		개선	악화	동일
2025년	11 (100%)	8 (72.7%)	1 (9.1%)	2 (18.2%)
2024년	41 (100%)	21 (51.2%)	14 (34.1%)	6 (14.6%)
전체('24~'25년)	52 (100%)	29 (55.8%)	15 (28.8%)	8 (15.4%)

주: 1) '25년 12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지표이나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26년 1월 공표된 '25년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반영함.

2) 52개 지표 목록은 붙임1 참고

※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이 상이하여 '25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전체 71개 지표 중 52개이며, 이 중 '25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11개이고, 41개가 '24년 값임

\* 71개 지표의 작성주기: 1년 주기(45개), 2년 주기(23개), 3년 주기 이상(3개)

\*\* 71개 지표의 최근 통계연도('25년 12월 기준): '25년(11개), '24년(56개), '23~'20년(4개)

## 여가 및 시민참여 영역 개선, 가족·공동체 및 건강 영역 악화 사회적 자본 및 건강 관련 주요 지표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남

- 여가, 시민참여, 고용·임금, 환경 영역 등은 전기 대비 개선 지표가 많음
  - 여가생활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율과 대인 신뢰도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흡
  - 다만 1인당 국내여행일수와 기관 신뢰도는 전년 대비 감소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여가생활 만족도	28.8%		27.0%		34.3%		39.4%
일자리 만족도	32.3%		35.0%		35.1%		38.3%
초미세먼지 농도	24 $\mu\text{g}/\text{m}^3$	19 $\mu\text{g}/\text{m}^3$	19 $\mu\text{g}/\text{m}^3$	18 $\mu\text{g}/\text{m}^3$	19 $\mu\text{g}/\text{m}^3$	16 $\mu\text{g}/\text{m}^3$	
자원봉사 참여율	16.1%		8.4%		10.6%		14.4%
대인 신뢰도	66.2%	50.6%	59.3%	54.6%	52.7%	55.7%	
1인당 국내여행일수	10.01일	5.81일	6.58일	8.29일	8.95일	8.54일	
기관 신뢰도	41.5%	48.3%	55.4%	52.8%	51.1%	49.6%	

\* 파란색은 전기 대비 개선, 빨간색은 전기 대비 악화, 노란색은 동일을 뜻함.

- 가족·공동체, 건강 영역 등은 전기 대비 악화 지표가 많음
  - 독거노인 비율, 사회적 고립도, 비만율, 자살률은 '19년보다 더 악화되었고, 사회단체 참여율은 코로나19 이후 개선되고 있었으나 '24년에 악화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독거노인 비율	20.5%	21.1%	22.0%	22.6%	23.3%	23.7%	
사회단체 참여율	51.8%	46.4%	47.7%	50.9%	58.2%	52.3%	
사회적 고립도	27.7%		34.1%		33.0%		33.0%
비만율	33.8%	38.3%	37.1%	37.2%	37.2%	38.1%	
자살률	26.9명	25.7명	26.0명	25.2명	27.3명	29.1명	

- 비만율, 자살률, 사회단체 참여율은 전년 대비 증감에서 연령별 차이가 큼
  - 전년 대비 비만율은 0.9%p, 자살률은 1.8명(인구 10만 명당) 증가하였으며, 40대 비만율(6.4%p)과 자살률(4.7명)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크게 악화
  - 사회단체 참여율은 전년 대비 5.9%p 감소, 40대(8.9%p)와 30대(8.3%p) 더 크게 감소

	'23년 대비 증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만율	+0.9%p	-0.1%p	-1.9%p	+6.4%p	-2.5%p	+1.7%p
자살률	+1.8명	+0.3명	+3.9명	+4.7명	+4.0명	-1.3명
사회단체 참여율	-5.9%p	-5.0%p	-8.3%p	-8.9%p	-2.6%p	-5.7%p

## 2. 영역별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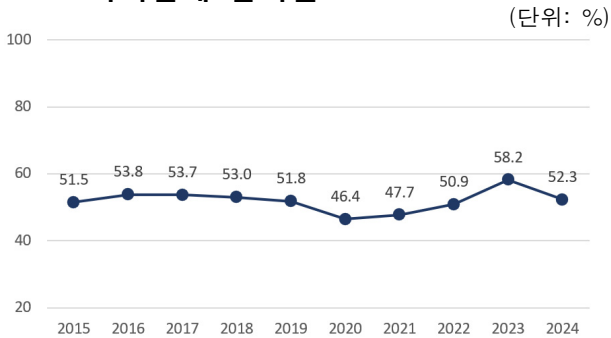
### 가. 가족·공동체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은 '24년 52.3%로 전년 대비 5.9%p 감소**  
**사회적 고립도는 '25년 33.0%로 정체되었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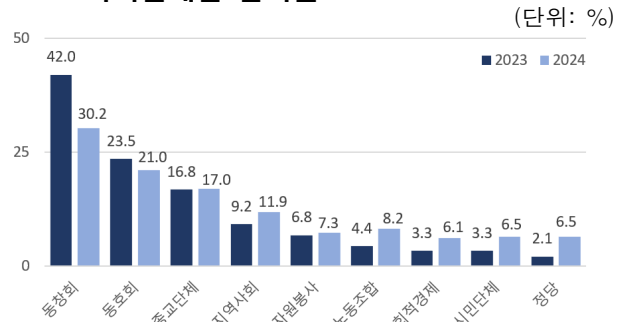
- **사회단체\*** 참여율은 코로나19 이후 '21년부터 증가 추세였으나 '24년 52.3%로 '23년(58.2%)보다 5.9%p 감소(보고서 26쪽)
  - (연령별) 30대(52.3%)와 40대(52.6%)가 모두 전년(60.6%, 61.5%) 대비 8~9%p 감소
  - (단체별) '23년 대비 동창회(-11.8%p)와 동호회(-2.5%p)는 감소한 반면,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참여율은 3~4%p 증가

\*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모임, 자원봉사·기부단체, 동창회·향우회,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단체 참여율 (2015~2024년) >



< 사회단체별 참여율 (2023년, 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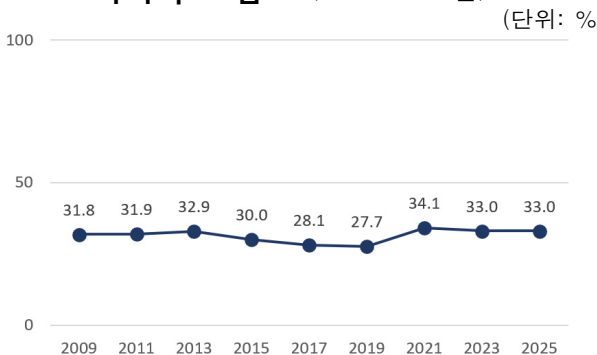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9개 사회단체 중 하나의 단체라도 '소속되어 가끔 활동'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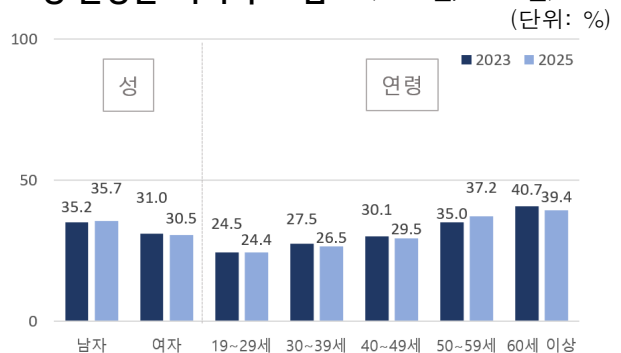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도는 '21년 34.1%로 증가하였고('19년 대비 6.4%p) '23년 33.0%로 소폭 감소한 이후 정체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보고서 27쪽)**

- (성별) '23년 대비 남자(35.7%)는 0.5%p 증가, 여자(30.5%)는 0.5%p 감소
- (연령별) 다른 연령대와 달리 50대(37.2%)는 '23년 대비 2.2%p 증가

< 사회적 고립도 (2009~2025년) >



<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2023년, 2025년) >



주: 1) 19세 이상 인구임.

2)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일 부탁', '이야기 상대'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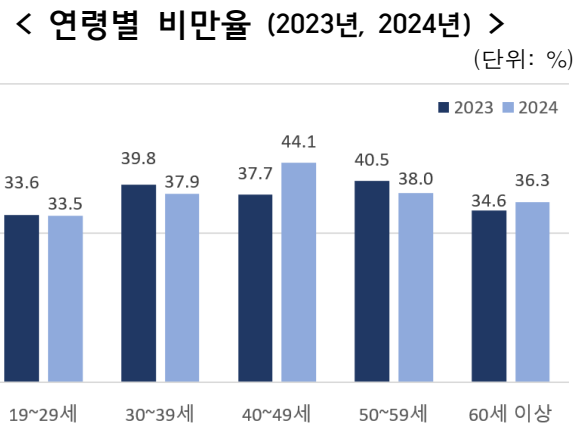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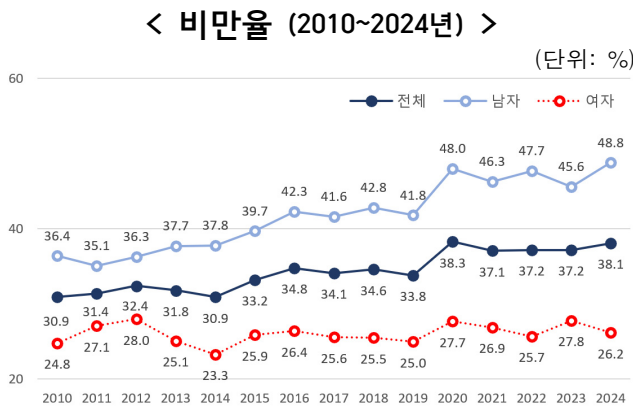
## 나. 건강 영역

**비만율은 '24년 38.1%로 '23년 37.2%보다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24년 29.1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

□ 비만율은 '24년 38.1%로 '23년 37.2%보다 0.9%p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만율이 최고치였던 '20년(38.3%)에 근사한 수치임(보고서 35쪽)

- (성별) 여자의 비만율은 '24년 26.2%로 '23년 27.8%보다 1.6%p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비만율은 '24년 48.8%로 '23년 45.6%보다 3.2%p 증가
- (연령) 40대는 '24년 4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큼('23년 대비 +6.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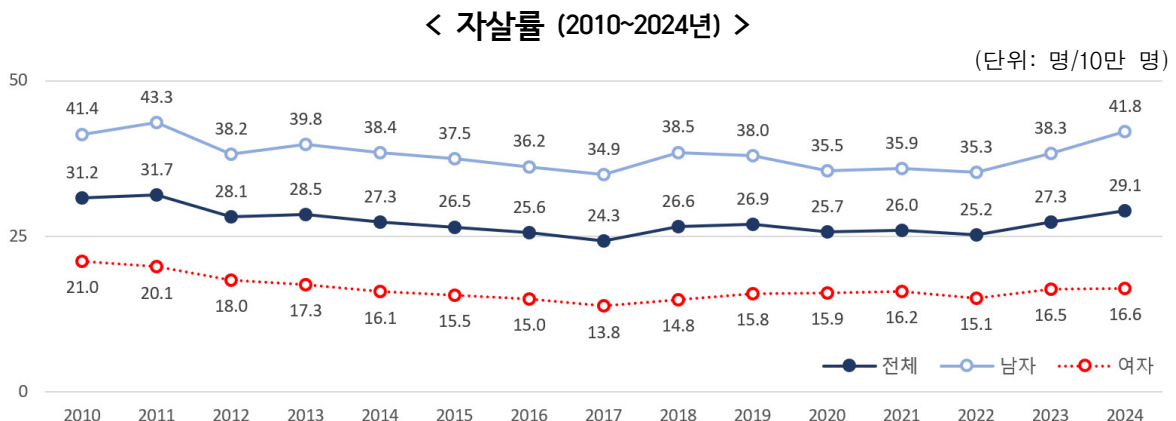


주: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임(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살률은 '24년 29.1명(인구 10만 명당)으로 '23년 27.3명에서 1.8명 증가(보고서 36쪽)

- 자살률은 '20년~'22년에 26명 이하로 감소, '23년부터 다시 증가함
- (성별) 남자의 자살률은 '23년 38.3명에서 '24년 41.8명으로 3.5명 증가, 여자의 자살률은 같은 기간 16.5명에서 16.6명으로 0.1명 증가
- (연령) 40대(4.7명), 50대(4.0명), 30대(3.9명) 증가, 80세 이상(-6.1명), 70대(-3.4명)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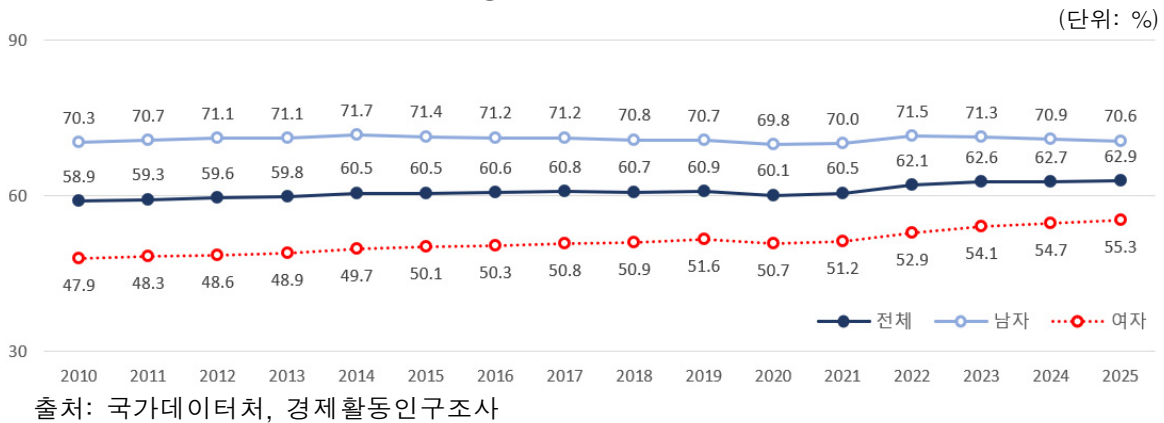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 다. 고용·임금 및 교육 영역

**고용률은 '20년 60.1% → '25년 62.9%로 증가하였고,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3년 70.3% → '24년 69.5%로 감소**

- '25년 고용률은 62.9%로 전년(62.7%) 대비 0.2%p 증가하여, '19년 60.9%에서 '20년 60.1%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보고서 52쪽)
  - (성별) '25년 기준 남자는 70.6%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55.3%로 '20년 50.7%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 30대(80.8%), 40대(79.9%), 50대(77.5%), 20대(60.2%), 60세 이상(46.7%) 순이며 다른 연령대와 달리 15세~19세와 20대는 전년 대비 각각 0.3%p, 0.8%p 감소하였음

< 고용률 (2010~2025년) >



-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4년 69.5%로 전년 대비 0.8%p 감소(보고서 45쪽)
  -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20년 감소(2.0%p) 이후 '21년~'23년 동안 증가했으나, '24년은 69.5%로 '23년 70.3%에서 소폭 감소(0.8%p)
  - (성별) '24년 남자는 71.2%, 여자는 67.9%로 남자가 3.3%p 더 높지만 남녀 간 대학졸업자 취업률 차이는 2011년 6.2%p에서 3%p 전후로 감소

< 대학졸업자 취업률 (2011~2024년) >

(단위: %)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67.6	67.4	67.5	66.2	67.1	65.1	67.7	69.6	70.3	69.5
남자	70.7	69.9	69.0	67.8	69.0	67.1	69.5	71.2	72.4	71.2
여자	64.5	65.1	66.1	64.8	65.2	63.1	66.1	68.2	68.5	67.9

주: 1) 고등교육기관에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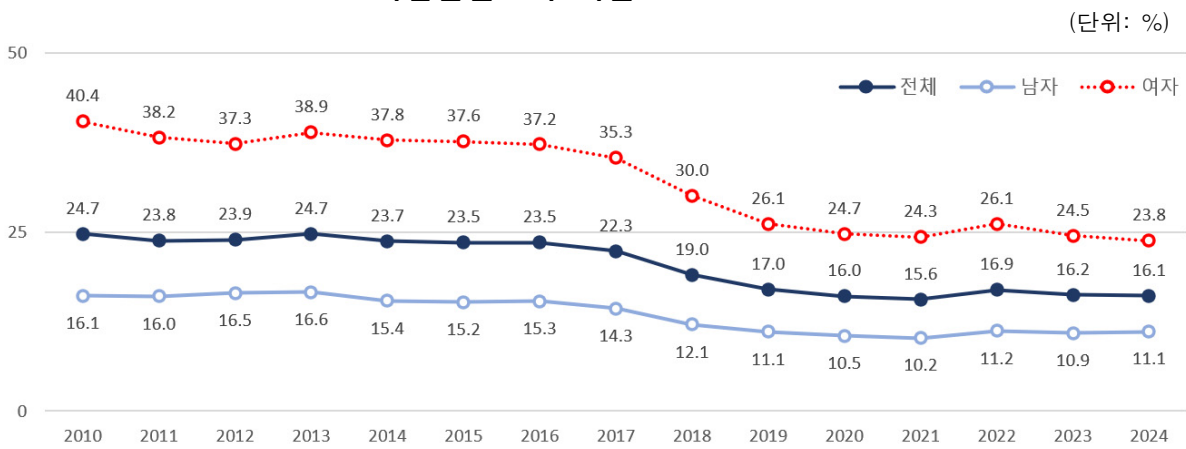
2) 취업률은 건강보험 및 국세DB를 연계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2년 16.9%→'23년 16.2%→'24년 16.1%로 감소 추세, 일자리 만족도는 '23년 35.1%→'25년 38.3%로 증가 추세**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4년 16.1%로 전년 대비 0.1%p 감소(보고서 55쪽)
  -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8년 19.0%에서 '24년 16.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일본(10.4%), OECD 평균(12.7%)보다 높음<sup>2023년 기준</sup>
  - (성별) '24년 기준 남자 11.1%, 여자 23.8%로 여자가 12.7%p 더 높으나 남녀 간 저임금근로자 비율 차이는 '10년 24.3%p에서 '24년 12.7%p로 감소

<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0~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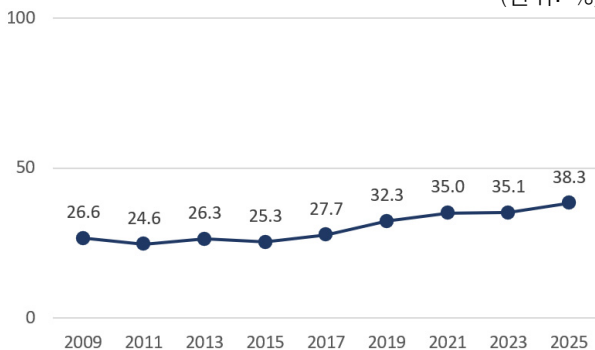


출처: OECD, *Earnings* (2025년 12월 기준)

- 일자리 만족도는 '23년 35.1%에서 '25년 38.3%로 증가(보고서 57쪽)
  - 일자리 만족도는 '25년 38.3%로 '23년보다 3.2%p 높으며,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 (직업별) 전문관리직(50.3%), 사무직(43.1%), 서비스판매직(32.6%), 기능노무직(27.8%) 순이며, '25년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은 서비스판매직(3.6%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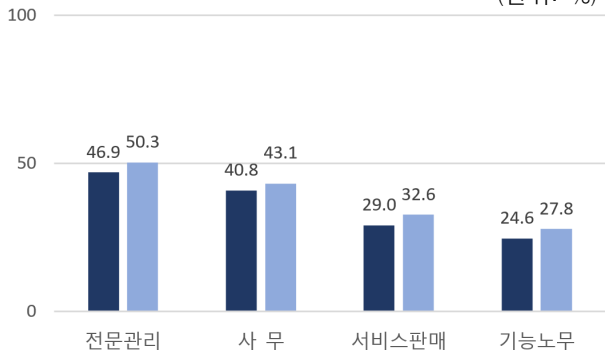
< 일자리 만족도 (2009~2025년) >

(단위: %)



< 직업별 일자리 만족도 (2023년, 2025년) >

(단위: %)



주: (임금근로자 대상) 현재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5점 척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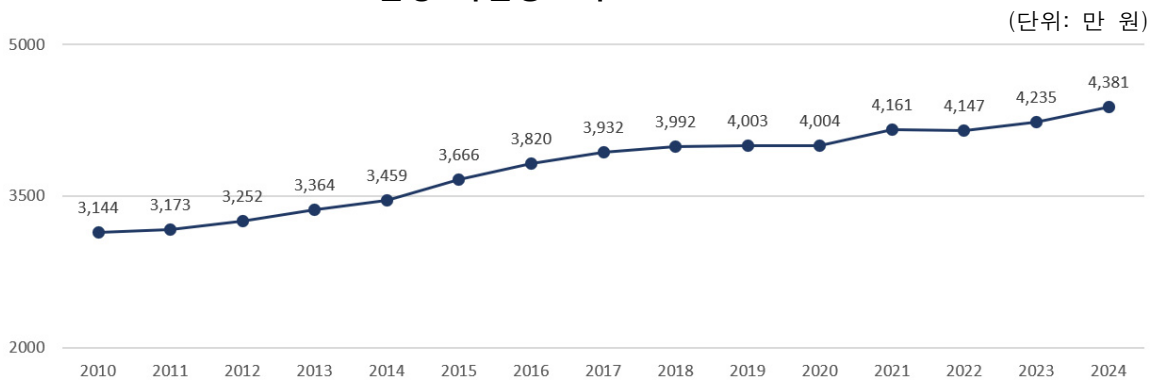
## 라. 소득·소비·자산 영역

**1인당 국민총소득은 '23년 4,235만 원에서 '24년 4,381만 원으로 146만 원 증가  
상대적 빈곤율은 '23년 14.9%에서 '24년 15.3%로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4년 4,381만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보고서 61쪽)

-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증가율은 매년 차이를 보임 '11년 이후 2~6%의 증가, '17년 이후 증가율이 낮아지며 '22년에는 0.3% 감소하였으나 '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1인당 국민총소득 (2010~2024년) >



주: 202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금액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 상대적 빈곤율은 '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보고서 67쪽)

- '11년 18.5%에서 감소하여 '21~'23년 15% 미만으로 정체되었으나 최근 소폭 증가
- '23년 기준 한국(14.9%)의 상대적 빈곤율은 미국(18.1%), 일본(15.4%)보다 낮지만 영국(12.6%), 독일(11.6%), 프랑스(8.7%)에 비해 높은 편임
- \* 상대적 빈곤율 : 미국 18.1%, 일본 15.4%, 영국 12.6%, 독일 11.6%, 프랑스 8.7%
-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매우 높음

< 상대적 빈곤율 (2011~2024년) >

(단위: %)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대적 빈곤율	18.5	18.2	17.4	17.0	16.1	15.1	14.8	14.9	14.9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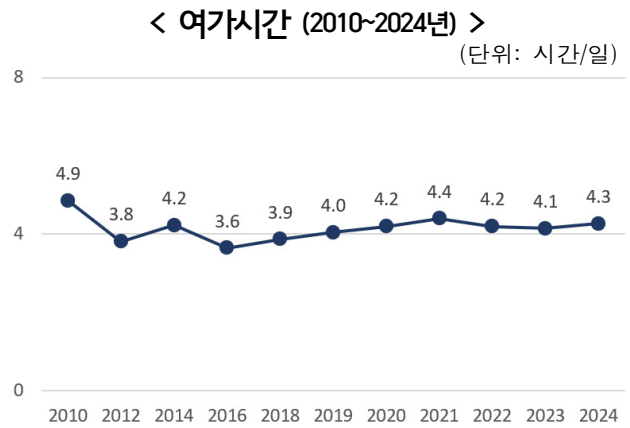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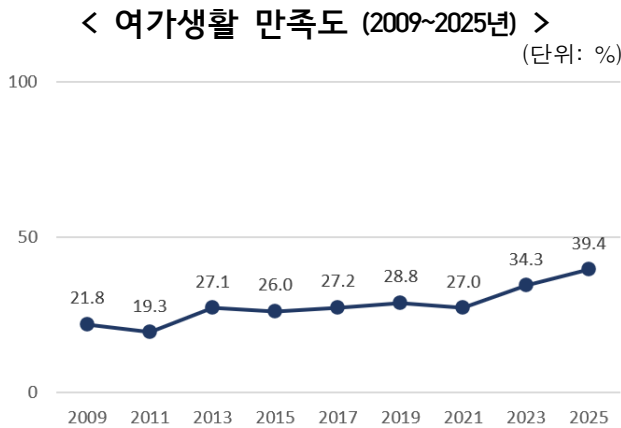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 여가 영역

**여가생활 만족도는 '23년 34.3%에서 '25년 39.4%로 증가**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23년 8.95일에서 '24년 8.54일로 감소**

- 여가생활 만족도는 '25년 39.4%로 '23년보다 5.1%p 증가(보고서 76쪽)
- 여가시간은 '21년 이후 감소(4.4시간 → 4.2시간 → 4.1시간) 추세였으나 '24년 4.3시간으로 '23년(4.1시간)보다 0.2시간 증가 (보고서 72쪽)



주: 1) '09년 15세 이상, '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임.  
 2) 여가생활에 대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 응답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주: 1) 15세 이상 인구임.  
 2) 평일과 휴일을 합한 일평균 여가시간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1인당 여행일수(국내)는 '24년 8.54일로 '23년(8.95일) 대비 0.41일 감소(보고서 75쪽)
- '20년 5.81일 이후 '23년 8.95까지 증가하였으나 '24년 감소
- 여행 경험률\*은 국내관광여행, 해외여행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
- \* 여행경험률('19년→'24년): 국내(85.0%→91.3%), 해외(23.2%→22.1%)
- (연령별) '23년과 비교 시 6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에서 여행일수 소폭 감소

**< 연령별 1인당 국내 관광여행일수 (2019~2024년) >**

(단위: %, 일)

연도	국내여행 경험률	국내 여행일수	연령별 국내 여행일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	85.0	10.01	7.72	11.51	12.10	10.89	10.55	8.15	6.08
2020	75.5	5.81	3.32	7.58	8.21	6.93	5.81	4.20	1.77
2021	89.0	6.58	3.82	8.72	9.07	7.81	6.78	4.91	1.92
2022	91.8	8.29	5.20	10.39	10.96	9.77	8.89	6.61	3.20
2023	91.8	8.95	5.37	10.31	11.35	10.74	9.48	7.82	4.55
2024	91.3	8.54	5.04	9.80	10.92	10.14	9.06	7.89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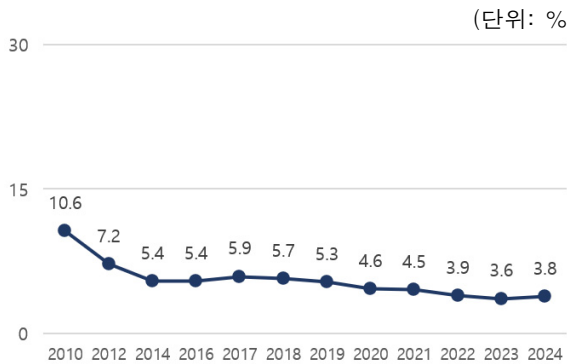
주: 1) 15세 이상 인구수(장래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2) 관광여행은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 위락, 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 바. 주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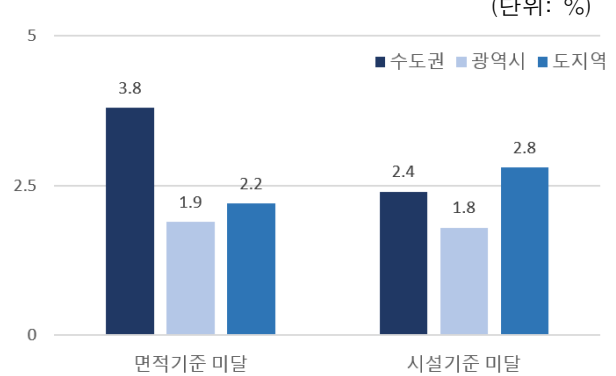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4년 3.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주거환경 만족도는 '24년 88.8%로 전년 대비 증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4년 3.8%로 전년 대비 0.2%p 증가(보고서 82쪽)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4년에 전년 대비 0.2%p 증가
  - (지역별) 수도권은 면적기준 미달 비율이 3.8%, 도지역은 시설기준 미달 비율이 2.8%로 다른 지역보다 높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0~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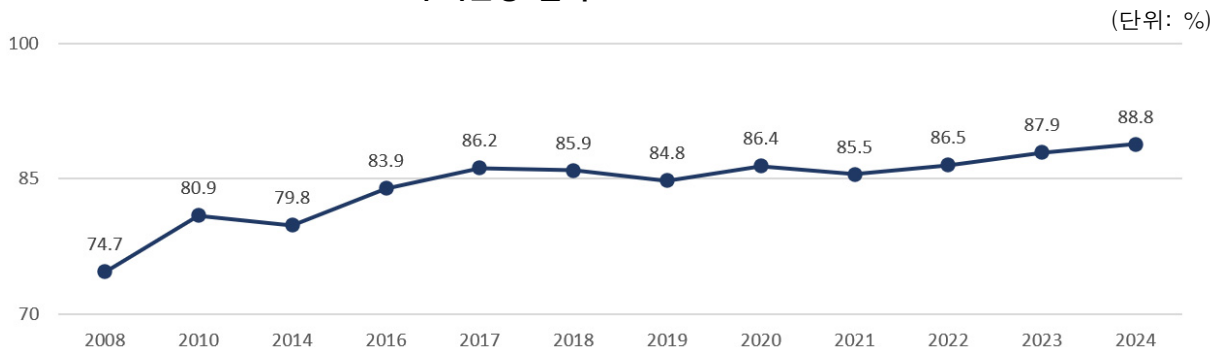
< 지역·기준별 미달가구 비율 (2024년) >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주거환경 만족도는 '24년 88.8%로 전년(87.9%) 대비 0.9%p 증가(보고서 84쪽)
  -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08년 74.7%에서 '17년 86.2%로 증가한 이후 정체되었으나 최근 증가 추세임
  - (지역별) '24년은 전년 대비 전남(5.6%p)과 전북(4.4%p) 지역에서 증가, 부산(-2.7%p), 강원(-1.3%p), 충북(-1.2%p) 지역에서 감소

< 주거환경 만족도 (2008~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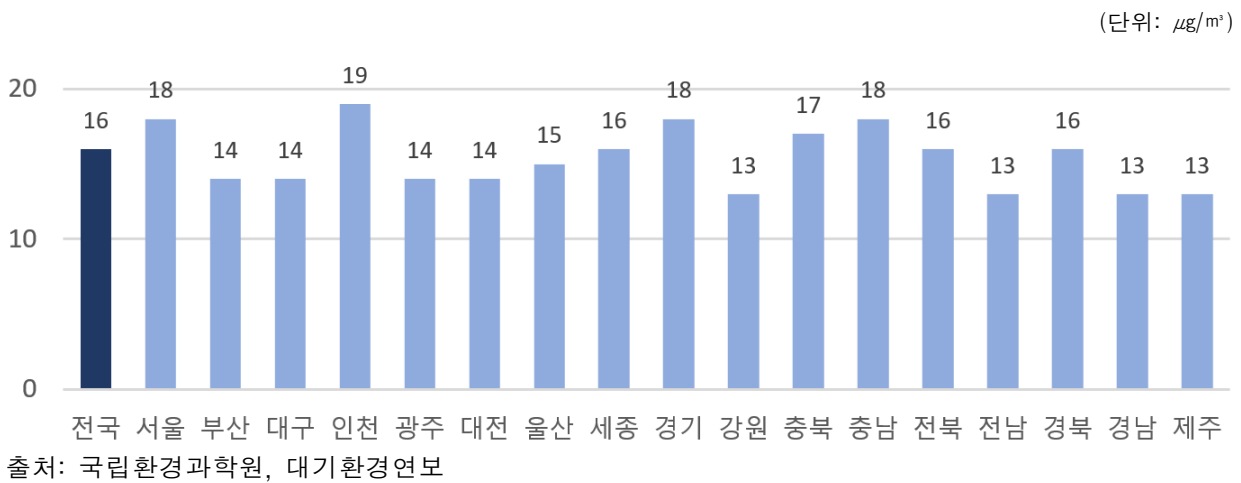
주: 거주지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매우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사. 환경 영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년  $16\mu\text{g}/\text{m}^3$ 로 전년 대비 감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4년  $12.8\text{m}^2$ 로 전년 대비  $0.2\text{m}^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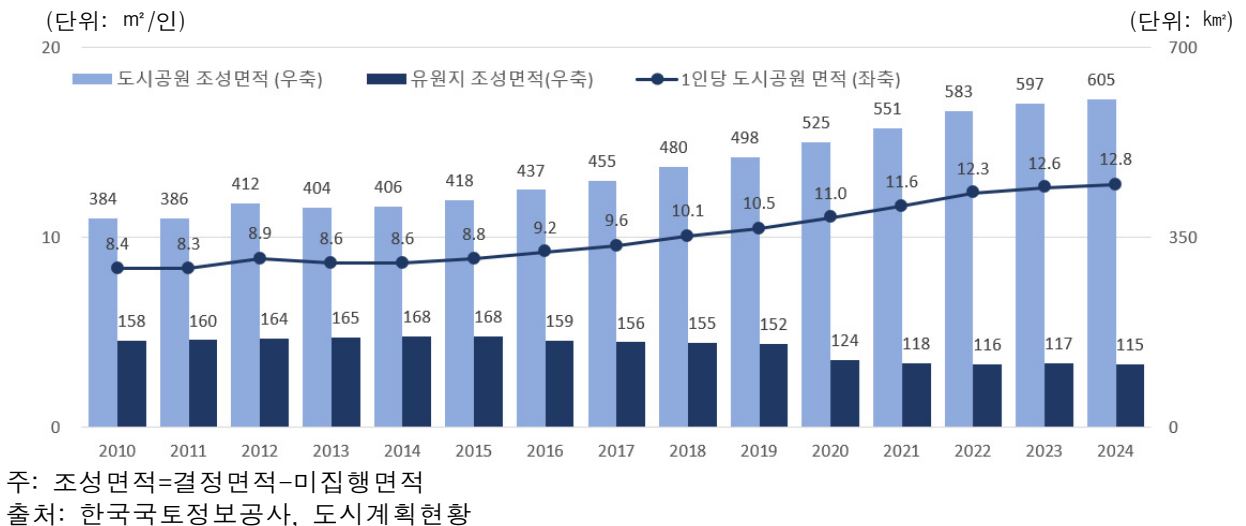
-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년  $16\mu\text{g}/\text{m}^3$ 로 '23년( $19\mu\text{g}/\text{m}^3$ ) 대비  $3\mu\text{g}/\text{m}^3$  감소(보고서 88쪽)
  -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지역이  $19\mu\text{g}/\text{m}^3$ 로 가장 높고, 서울·경기·충북·충남 지역이  $17\mu\text{g}/\text{m}^3$  이상으로 높은 편임

<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2024년) >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또한 '10년  $8.4\text{m}^2$ 에서 '24년  $12.8\text{m}^2$ 로 지속적인 개선 추세임(보고서 87쪽)
  - 도시공원 조성면적의 실면적은 '10년  $384\text{km}^2$ 서 '24년  $605\text{km}^2$ 로  $57.6\%$  증가, 다만 유원지 면적은 같은 기간  $158\text{km}^2$ 에서  $115\text{km}^2$ 로  $27.2\%$  감소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010~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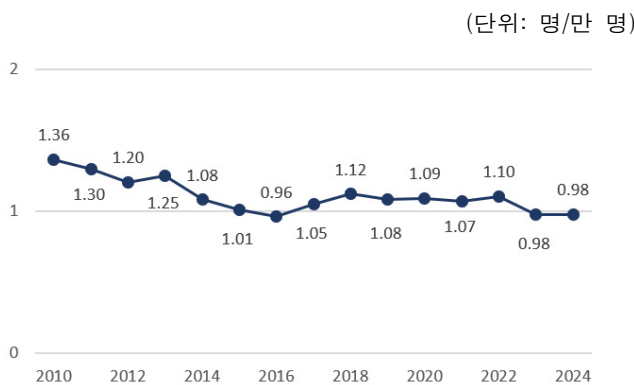
## 아. 안전 영역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년 2,098명으로 '23년보다 82명 증가  
화재 사망자 수는 '24년 308명으로 '23년보다 25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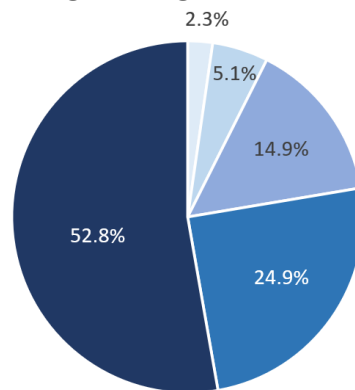
□ 산재사망률은 '24년 근로자 1만 명당 0.98명으로 '23년과 동일하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년 2,098명으로 '23년 2,016명보다 82명 증가(보고서 102쪽)

○ (연령별) 60세 이상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07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 중 52.8%이며 '23년 대비 0.7%p 증가

< 산재사망률 (2010~2024년) >



< 산재사망자 연령별 비율 (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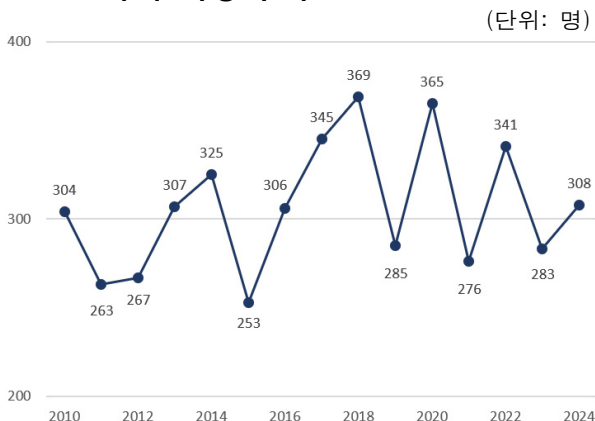
주: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년 308명으로 '23년 283명보다 25명 증가,  
화재 발생건수는 '24년 37,614건으로 '23년 38,857건보다 1,243건 감소(보고서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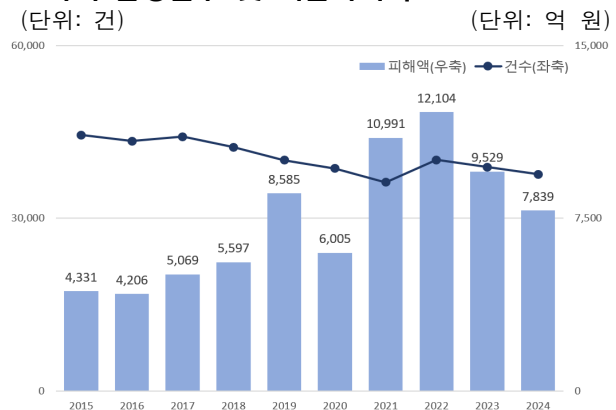
○ (재산피해액) 건축물의 대형화 및 복합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24년은 7,839억 원으로 '22년(1조 2,104억 원) 이후 감소

< 화재 사망자 수 (2010~2024년) >



출처: 소방청, 화재 발생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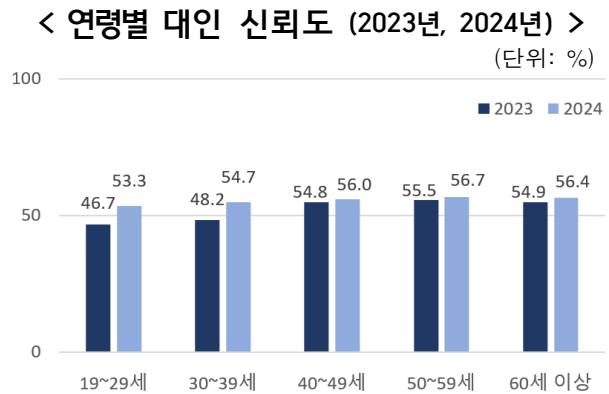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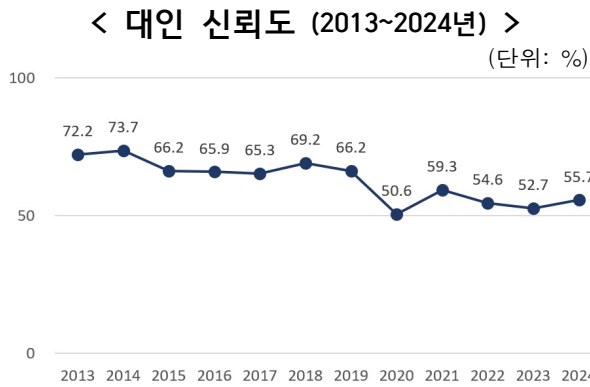
< 화재 발생건수 및 재산피해액 (2015~2024년) >



## 자. 시민참여 영역

**대인 신뢰도는 '24년 55.7%로 전년 대비 3.0%p 증가,  
기관 신뢰도는 '24년 49.6%, '2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1.5%p 하락**

- 대인 신뢰도는 '24년 55.7%로 '23년 대비 3.0%p 증가하였으며,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큼(보고서 118쪽)
- 대인 신뢰도는 '15~'19년까지 65% 내외에서 '20년에 50.6%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연령별) '23년과 비교 시 30대 이하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19~29세는 전년 대비 6.6%p, 30~39세는 6.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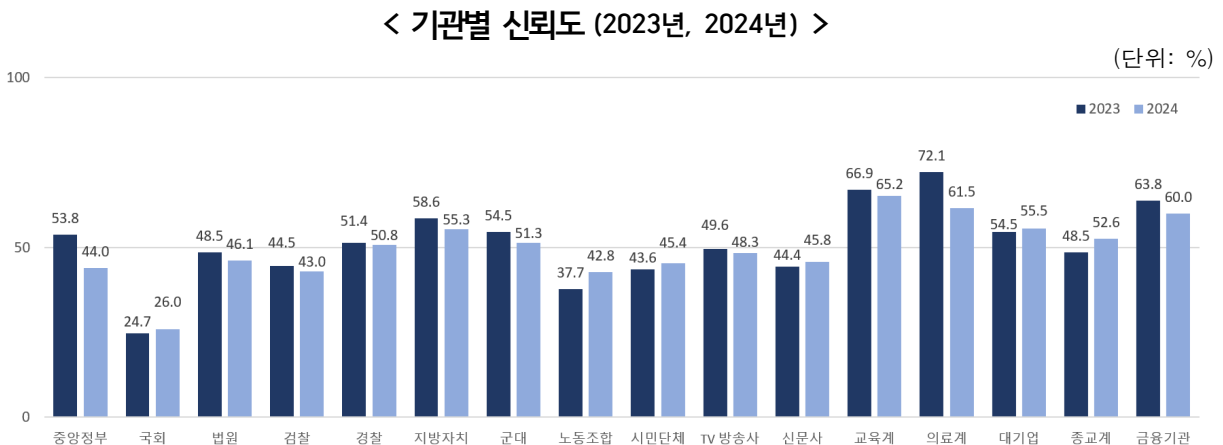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기관 신뢰도는 '24년 49.6%로 '23년(51.1%) 대비 1.5%p 하락함

- 기관 신뢰도는 49.6%로 '21년 상승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보고서113쪽)
- (기관별) '23년과 비교 시 의료계와 중앙정부에서 각각 10.6%p, 9.8%p로 크게 하락, 노동조합과 종교계는 각각 5.1%p, 4.1%p 증가



주: 1)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각 기관을 '매우 믿는다' 또는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차. 주관적 웰빙 영역

**'24년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전년 대비 거의 변동이 없으나, 부정정서는 3.8점으로 전년(3.1점) 대비 0.7점 증가**

- 삶의 만족도는 '24년 6.4점으로 전년대비 동일, '13년(5.7점) 이후 증가 추세에서 정체(보고서 121쪽)
  - (가구소득별)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전년(5.7점)보다 0.1점 증가하였으나 2년 연속 6.0점에 미치지 못함

**< 가구소득별 삶의 만족도 (2023년, 2024년) >**

(단위: 점/10점)

	전체	100만 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삶의 만족도 ('23년)	6.4	5.7	6.1	6.2	6.4	6.5	6.6	6.6
('24년)	6.4	5.8	6.2	6.2	6.5	6.4	6.5	6.5

주: 1)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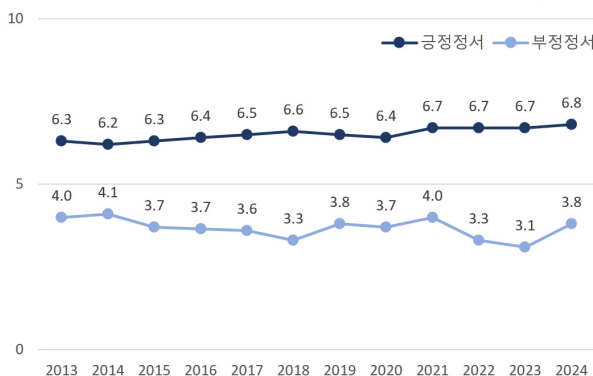
2)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행복 정도를 보여주는 긍정정서는 '24년 6.8점으로 전년대비 0.1점 증가(보고서 123쪽)
-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정서는 '21년 4.0점, '22년 3.3점, '23년 3.1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4년은 3.8점으로 '23년 대비 0.7점 증가(보고서 124쪽)
  - (직업별)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부정정서가 3.8점으로 가장 낮고, 농림어업직에서 4.3점으로 가장 높으며, 농림어업직은 '23년 대비 1.2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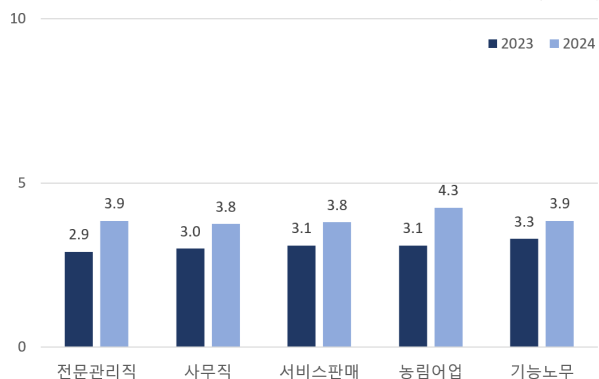
**< 긍정 및 부정정서 (2013~2024년) >**

(단위: 점/10점)



**< 직업별 부정정서 (2023년, 2024년) >**

(단위: 점/10점)



주: 1)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19~69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2) 긍정정서(행복)와 부정정서(우울감, 걱정)는 어제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붙임1. 최근 추세별 52개 지표 <sup>(25년 업데이트된 지표)</sup> 현황

	개선지표(29개)	악화지표(15개)	동일지표(8개)
가족·공동체		독거노인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고립도
건강	기대수명	비만을 자살률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유아교육 취원율 대학 졸업자 취업률	
고용·임금	고용률 월평균 임금 저임금 근로자 비율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실업률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 중위소득 소비생활 만족도 가구순자산	소득 만족도 상대적 빈곤율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여가생활 만족도	1인당 여행일수	
주거	자가점유가구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택 임대료 비율 1인당 주거면적
환경	초미세먼지 농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안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가해에 의한 사망률 화재 사망자 수	산재사망률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정치적 역량감 부패인식지수 자원봉사 참여율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시민의식	
주관적 웰빙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만족도